

#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가죽버선의 보존처리

Conservation Treatment of  
Leather Socks Housed in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이혜린, 박승원\*

국립중앙박물관 보존과학부

Lee Hyelin, Park Seungwon\*

Conservation Science Division, National  
Museum of Korea

\* Corresponding Author:  
Park Seungwon

Tel : 82-2-2077-9446

E-mail : meides@korea.kr

## 요약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설상용(雪上用) 가죽버선(남산1567)에 대한 보존처리를 진행하여 유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전시와 연구 활용을 위한 원형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가죽버선에 대한 기록은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인재일록(忍齋日錄)』, 『하멜표류기』 등의 문헌에 ‘피말(皮襪)’, ‘녹피말(鹿皮襪)’, ‘장피말(獐皮襪)’, ‘리피말(狸皮襪)’과 같이 재료와 말[襪:버선]이 결합된 형태로 확인되며, 제주도과 연관되어 나타나고 있다. 현전하는 가죽버선은 외형이 버선 모양이고 사용된 재료는 가죽과 면직물이며, 가죽만을 사용한 단일구성, 가죽과 면직물이 결합된 이중구성의 유형이 있다. 이러한 가죽버선은 제주도에서 추위를 막기 위해 신었던 것으로 확인된다. 가죽버선의 보존처리에는 먼저 유물에 대한 상태조사를 통해 보존처리 계획을 세웠고, 유물의 상태가 온전하지 못했기 때문에 유물과 관련된 선행연구, 실증자료 조사로 가죽버선의 원형을 파악하고자 했다. 상태조사를 바탕으로 유물의 상태에 맞는 세척을 진행하고, 소실된 버선목 부분은 색 맞춤을 한 직물을 사용하여 가역적인 바느질 방법으로 보강해 주었다. 가죽 부분의 손상과 분산화 진행으로 원형을 잃은 버선바닥 부분은 보강용 틀을 제작해 유물의 형태유지에 도움을 주었다. 해당 과정을 통해 가죽버선의 구성, 제작방법, 특징을 파악하고 가죽버선의 원형 회복과 상태를 안정화시킬 수 있었다.

**주제어** : 버선, 가죽버선, 직물, 복원, 안정화

## Abstract

The purpose of this project was to improve the stability of a pair of leather socks for use on snowy days in the collection of the National Museum of Korea (Namsan1567) by conducting conservation treatment and restoring the socks to their original form for use in research and exhibition. Leather socks are referred to in ancient documents with names combining the word “mal” for socks with a term indicating their material (e.g., *pimal*, meaning leather socks; *nokpimal*, meaning deer leather socks; *jangpimal*, meaning roe deer leather socks, or *lipimal*, meaning racoon dog leather socks) and are mentioned mostly in connection with Jeju Island. Related documents include the *Seungjeongwon ilgi* (Daily Record of the Grand Secretariat), *Injaeilnok* (Diary of Injae Jo Geukseon), and *Hamel's Journal and a Description of the Kingdom of Joseon*. Extant examples of ancient leather socks display the same form as *beoseon* (traditional Korean socks) and are made of either leather or a combination of leather and fabric. It is likely that such leather socks were worn on Jeju Island to protect the feet from the cold.

A condition survey of the leather socks was first conducted to establish a plan for their conservation treatment. Since the socks were in rather poor condition, it was decided to identify their original form through an investigation of relics and pertinent previous studies. The socks were cleaned in consideration of results of the condition survey, and the missing parts around the necks of the socks were reinforced in a reversible manner using counting stitches with cloth dyed to match the original color. Since the bottoms of the socks had lost much of their original form due to deterioration and disintegration in the leather, supports were made and inserted inside the socks to help retain their shape. Through these processes, the structure and characteristics of the socks and the techniques used in their production could be analyzed, their condition was stabilized, and their original form was recovered.

**Keywords** : Beoseon, Leather Socks, Fabrics, Restoration, Stabilization

투고일: 2022.03.18. 심사(수정)일: 2022.04.21. 게재확정일: 2022.04.25.

## 1. 서론

버선은 사람의 발을 보호하고 보온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요즘은 서양식 버선 즉 양말(洋襪)이 이를 대체하고 있다. 버선에 대한 착용이 언제부터였는지 알 수 없지만 기록으로 볼 때 『삼국사기(三國史記)』 흥덕왕 복식 금제(服飾 禁制)에 신라의 진골대등(眞骨大等)은 능직(綾織) 이하의 버선을 사용하고, 진골여자(眞骨女)는 수(繡)·금(錦)·라(羅)직물을 사용한 버선 금한다는 내용으로 보아 신라시대에도 버선을 착용한 것으로 볼 수 있다<sup>[1]</sup>. 버선은 한자로 ‘襪’이라 썼으며, 중종 22년(1527) 최세진(崔世珍)이 쓴 『훈몽자회(訓蒙字會)』에서 ‘襪 보선 말’이라고 쓰여 있어 그 이전부터 ‘보선’이라 불리었음을 생각해볼 수 있다<sup>[2]</sup>.

버선은 용도에 따라 의례용과 일반용이 있으며, 형태에 따라 끈은 버선, 뉘인 버선으로 구분할 수 있다. 또한, 구성에 따라 홀버선, 겹버선, 솜버선, 누미버선, 가죽버선으로 나눌 수 있다. 이 중 가죽버선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복식사에서 피혁이나 모피 복식과 함께 언급되거나 제주도 복식에서 부분적으로만 언급되어 있다<sup>[3],[4],[5],[6],[7]</sup>. 가죽에 대한 보존처리는 서대(犀帶), 피갑(皮甲), 동개[筒箍] 등의 선행연구에서 가죽을 포함한 유물의 보존처리로 보고되어 있으나 가죽버선에 대한 보존처리는 그 사례가 부족하여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sup>[8],[9],[10],[11]</sup>.

이에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설상용(雪上用) 가죽버선(남산1567 이하 가죽버선)을 대상으로 하였다. 육안으로 확인되는 가죽버선의 상태는 전체적으로 납작하게 눌러 있으며, 표면에 흠먼지와 고착된 이물질이 확인된다. 직물은 열화가 진행 중이고, 가죽 부분이 딱딱하게 굳고 분말화되어 부서지고 있어 가죽버선의 안정화를 위해 보존처리가 필요한 상태이다. 특히 버선목 일부와 가죽부분의 밀착이 소실되어 형태 복원을 통해 원형 유지의 필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었다.

해당 연구는 가죽버선에 대한 보존처리를 통해 유물의 안정성을 높이고 향후 전시와 연구 활용을 위한 원형회복을 목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은 문헌을 통해 가죽버선에 대한 명칭을 살펴보고, 선행연구에서 제주도민과의 면담을 통해 밝혀진 가죽버선의 쓰임과 구성, 유물의 특징을 조사하여 연구 대상 가죽버선과의 유사성을 살펴보고, 보존처리와 복원 과정을 기록하여 직물과 가죽이 결합된 유물의 처리 방법을 제시하는데 의의를 두었다.

## 2. 가죽버선의 유형과 특징

### 2.1. 가죽버선에 대한 기록 고찰

가죽버선에 대한 기록은 왕실 문헌이나 개인 일기, 문집류 등에서 일부 확인 되는데, 다른 복식에 비해 기록은 소략하나 그 내용을 살펴보면 표1과 같다.

표1. 가죽버선에 대한 문헌 기록

시기	저자	내용	출처
1613	조극선 (趙克善)	“濟州牧使叔送以土產 又以小套土一部 · 皮襪一雙送 於余”	『인재일록(忍齋日錄)』 <sup>[12]</sup>
1655	Hamel Hendrik	“우리 每人 앞에 신 두켤레와 두둑한 外衣 한 벌과 <u>가죽버선 한 켤레</u> 씩을 만들어 주었다.”	『하멜표류기』 <sup>[13]</sup>
1756	-	“... <u>獐皮襪</u> · 或新綿襪, 從厚進着, 毋觸冷氣, 每以溫 和爲主, 則自可愈矣. 申晚曰, 然則獐皮狸皮襪, 自藥 房製入, 何如? 令曰, 依.”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sup>[14]</sup>
1786	정조 (正祖)	“掌樂院主簿 俞彥鎔所懷臣待罪掌樂院以職掌事有所 仰達者矣宗廟 永寧殿大祭時差備工人所着冠服有違於 儀禮者差備工人則只有紅袖衣而無白袖中單白綃帶白 <u>皮襪</u> 烏皮履故以其常時所着絲帶皮鞋仍用其在敬”	『일성록(日省錄)』 <sup>[15]</sup>
-	김문숙 (金文叔)	“山 <u>獐皮襪</u> 狗皮衣 蹲坐荒茅強作威自道班名無出右 別 監風憲摠之釋”	『영주풍아(瀛洲風雅)』 「탐라 죽지사(耽羅竹枝詞) 其十一」 <sup>[16]</sup>
1824	조정철 (趙貞詰)	“醋裏生涯堪自笑, <u>鹿皮襪</u> 子兔皮冠. <u>鹿皮襪</u> 子兔皮冠, 自媿先朝簪筆官.”	『정헌영해처감록(靜軒瀛海處坎錄)』 『탐라잡영(耽羅雜詠)』 「효옥연환체적황(效玉連環體謫况)」 <sup>[17]</sup>

이처럼 가죽버선에 대한 표현은 ‘피말(皮襪)’, ‘녹피말(鹿皮襪)’, ‘장피말(獐皮襪)’, ‘리피말(狸皮襪)’ 등으로 확인되며, 표기된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는 쓰인 재료, 뒷부분은 말(襪)이 결합된 형태이다. 또한, 가죽버선은 제주도의 토산품이며 추위를 막기 위해 신었던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표2는 제주도민과의 면담을 통해 조사된 가죽버선에 대한 내용으로 현전하는 유물은 대부분 제주도의 중산간 지역에서 목축업자나 테우리[목동], 사냥꾼, 화전민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가죽보선’이라고 불렀다. 겨울철이나 농사일을 할 때 혹은 산에 소나 말을 돌보러 갈 때 신었으며, 재료는 노루, 개, 소 등의 가죽이 사용되었는데, 이 중 노루가죽이 가장 좋고, 소가죽이 가장 질기고 두꺼워 많이 사용되었다<sup>[6],[7],[18]</sup>.

“가죽버선의 수명은 약 12년 정도이며, 가죽버선을 신지 않을 때는 집안의 아궁이 위의 벽 같은 곳에 매달아 두어 아궁이에서 뿜어 나오는 연기로 좀이 스는 것을 방지할 수 있었다.”고 한다<sup>[3],[19]</sup>.

털을 제거한 가죽은 무겁고 딱딱해서 옷을 만들기 전에, 가죽이 변하지 않고 부드러워지도록 소금을 친다. 가죽버선을 맨발로 신게 되면 발이 갈라지고 트기 때문에 이를 방지하기 위해 가죽버선 안 바닥에 짚을 깔아 신거나 가죽신, 짚신 위에 신었다<sup>[4],[20]</sup>.

표2. 제주도민과의 면담내용<sup>[6]</sup>

면담내용	면담자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음 · 가죽버선을 신으면 발이 매우 따뜻하다	김영훈(1939년생) 김경득(1929년생) 외 2명
· 가죽버선은 소가죽으로 만들었다 · 가죽버선에 초신(짚신)을 신었다 · 소가죽은 돼지기름으로 문질러 주면 직물처럼 부드러워진다.	고한구(1936년생)
· 가죽버선은 발목 밑은 소가죽, 발목 위부분은 무명을 사용하였는데 신발을 신고 벗기 편하도록 하기 위해서였다 · 가죽버선에 나막신을 신었다	송재희(1933년생)
· 가죽버선은 방수와 보온력이 뛰어나 일하러 다닐 때 신으면 따뜻했다.	오영종(1929년생)

## 2.2. 가죽버선의 유형

선행 연구로 확인되는 가죽 버선의 유물을 살펴보면 표3과 같다.

표3. 가죽버선 유물 목록

연번	명칭	사진	재료	치수			소장처/출처
				길이	너비	높이	
1	갓신		가죽 사직	27	9	37	국립민속박물관
2	갓신		가죽 면	29	8	21	국립민속박물관
3	가죽버선1		가죽	-	-	-	제주돌문화공원 이유지업
4	가죽버선		가죽	26.5	9.3	22	개인소장 제주복식 p.30
5	가죽버선		소가죽 면	27	-	23	제주특별자치도 민속자연사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58
6	가죽버선		노루가죽 면	26	-	24	제주민속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60

연번	명칭	사진	재료	치수			소장처/출처
				길이	너비	높이	
7	가죽버선		소가죽	29	-	24	제주민속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57
8	가죽버선		소가죽	27	-	23	제주민속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137
9	가죽버선		소가죽	28	-	27	제주민속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138
10	가죽버선		소가죽 면	30	-	28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복식, p.103
11	가죽버선		소가죽	27	-	24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복식, p.104
12	가죽버선		노루가죽	26	-	23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64
13	가죽버선		노루가죽	27	-	24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65
14	가죽버선		노루가죽	25	-	21	제주대학교박물관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p.138
15	가죽버선		가죽	28	-	28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박양희,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가죽과 모피에 관한 연구」, p.115

이와 같은 자료를 바탕으로 가죽버선은 유형을 나누면 버선볼부터 버선목까지 가죽만을 재료로 만들어진 단일 구성과 두 가지 재료 이상으로 만들어진 이중 구성으로 나눌 수 있다. 그 세부적인 구성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 유형1. 가죽만을 사용한 단일 구성

단일 구성은 버선볼과 버선목 모두 가죽으로 만들어진 것이며, 단국대학교 석주선기념박물관 소장의 가죽버선(표3-15)과 같이 버선목 안쪽으로 털이 있는 가죽을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또한, 버선목과 버선볼을 연결할 때 가죽실을 사용하여 홈질해 준 것이 특징이다.

## 유형2. 직물과 가죽을 사용한 이중 구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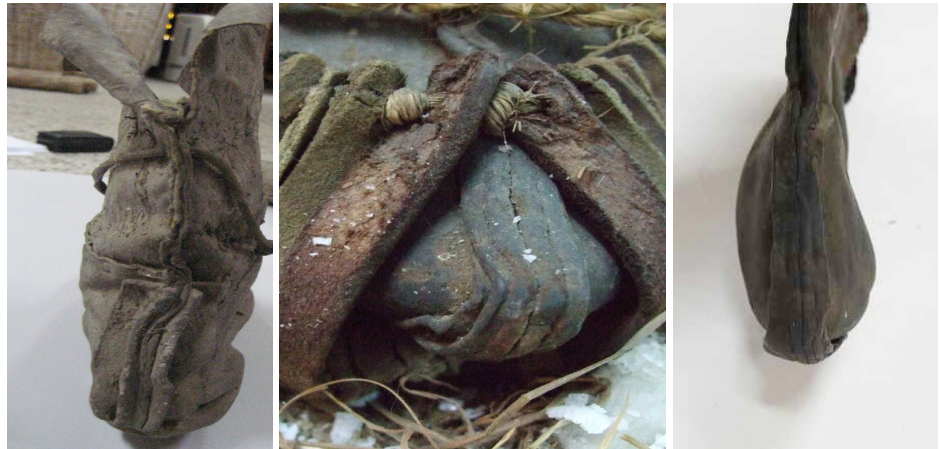
이중 구성은 버선볼은 가죽, 버선목은 직물을 사용해 구성된 것이다. 버선목 부분에 사용한 직물은 대부분이 면직물이며 누빔하였다. 버선목과 버선볼을 연결할 때 면사를 사용하여 홈질로 연결해 주었다.

## 2.3. 가죽버선의 특징

2.1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가죽버선은 두 가지 유형이 있다. 유형1은 버선의 안쪽 면과 바깥쪽 면을 맞대고 시접을 맞잡아 겹에서 바느질하는 방법으로 버선코와 뒤축을 연결하였는데 다른 가죽을 덧대어 튼튼하게 보강해주었다<sup>[5]</sup>. 버선바닥은 바깥쪽과 안쪽의 가죽을 수평으로 잘 맞춘 후 ‘×’자 형태로 엮갈려가며 바느질하여 버선코나 뒤축처럼 시접이 돌출되지 않고 평활하여 걷는데 불편함이 없게 되어 있다<sup>[5]</sup>. 제주도에서는 이 바느질 방법을 ‘코걸이’라고 부른다<sup>[6]</sup>. 유형2는 버선볼은 유형1과 같으며, 버선목을 누빈 직물(주로 면직물)과 연결한 것이다.



- (a) 가죽버선  
제주대학교박물관<sup>[6]</sup>  
(b) 가죽버선  
민속자연사박물관<sup>[6]</sup>  
(c) 가죽버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sup>[7]</sup>



도1. 가죽버선의 버선코와 뒤축



- (a) 가죽버선  
제주대학교박물관<sup>[6]</sup>  
(b) 가죽버선  
단국대학교 석주선  
기념박물관<sup>[7]</sup>  
(c) 가죽버선  
제주대학교박물관<sup>[6]</sup>



도2. 가죽버선의 바닥 연결부



### 3. 설상용 가죽버선의 보존처리

설상용 가죽버선(이하 가죽버선)의 보존처리는 사전조사를 통해 확인된 가죽버선의 상태에 따라 경화되어 부서지고 분상화가 진행된 가죽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과정부터 시작하였다. 이미 오랜 시간 경화된 상태로 모양이 틀어져서 무리한 진행 시 추가 손상의 우려가 있었기 때문이다. 먼저 투명 밀폐장 내부 습도를 70%의 고습상태로 만든 다음 가죽버선을 넣고 천천히 순응할 수 있도록 하고, 서서히 내부 습도가 80%가 되도록 습도를 올려 경화된 가죽이 유연도를 회복할 수 있게 했다. 버선목 부분의 직물류는 고습상태에서 곰팡이 등 미생물의 번식이 우려되므로 가죽 표면의 변화를 충분히 관찰하면서 습도를 제어했다. 이후 표면 건식세척, 습식세척, 형태 보정을 통한 구김과 같은 직물의 주요한 손상 원인 제거, 결손 부분을 보강하는 순서로 진행하였다. 현재의 상태에서 추가 손상이 진행되지 않고 모양을 유지하여 보관되면서 향후 전시 활용이 가능한 상태로의 보존에 중점을 두었다.

#### 3.1. 처리 전 조사

보존처리를 시작하기 전 가죽버선의 상태를 확인하였다<sup>(도3)</sup>. 가죽버선은 1건 2점(이후 2-1, 2-2로 구분)으로 두 개의 외형과 크기, 직물의 사용 등 육안으로 확인하기에도 약간의 차이를 보였다.



도3. 가죽버선의 처리 전 상태조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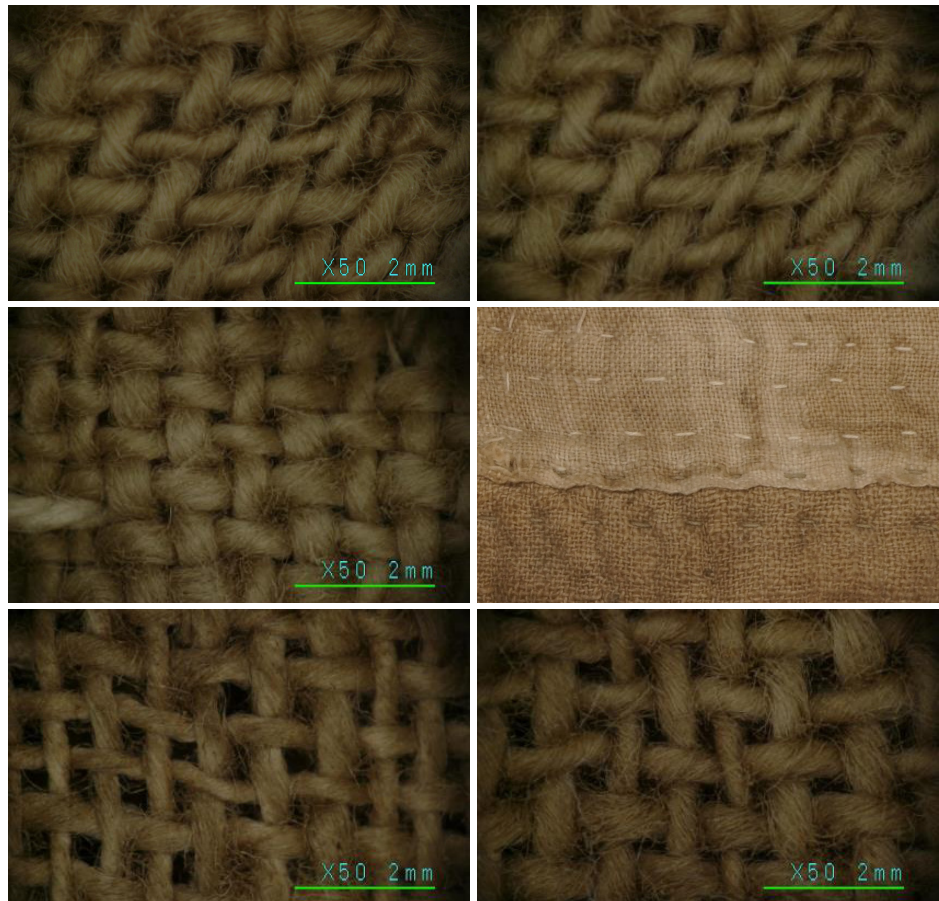
가죽버선(2-1)의 전체크기는 26.5×29.0(가로×세로/cm, 이하 크기 표기 동일), 가죽버선(2-2)는 27.5×31.0이다. 버선볼은 홀으로 가죽을 각각 1장씩 사용했고, 버선코에 1.0×12.5, 뒤축은 1.5×8.0(손상이 심하여 형태 추정)의 가죽 두 장이 덧대어져 헤지기 쉬운 부분을 보강해 준 것으로 보인다.

가죽버선 2점의 재료로 쓰인 직물은 모두 평직의 면직물이다<sup>(도4)</sup>. 직물의 밀도를 살펴보면, 가죽버선(2-1)은 겉감과 안감의 밀도가 12.5×12.5(경사×위사/1cm, 이

하 밀도 표기 동일)이고 우연사(右撚絲, S꼬임, 오른쪽꼬임)를 사용하였다. 경사와 위사의 올굵기는 균일하지 않지만 실에 강한 꼬임을 주어 표면이 평활하지 않고 약간 오글거림이 있다. 버선목을 덧댄 면직물의 밀도는  $12.5 \times 15$ 이고 올굵기가 비교적 균일하다. 가죽버선(2-2)는 겉감의 밀도는  $15 \times 12.5$ 이고 안감은  $11.2 \times 12.5$ 이다. 우연사를 사용하였고, 경사와 위사의 올굵기는 균일하지 않지만 강한 꼬임이 확인된다. 버선목은 총 3점으로 겉감과 안감, 덧댄 직물 모두 면직물이며, 가로 1cm, 세로 1cm 간격으로 누빔하였다. 누빔은 가로 방향으로는 규칙적이고 세로는 부분적으로 보인다. 가죽버선(2-1)은 뒤축을 중심으로 전면 5.0cm, 후면 8.5cm이고, 가죽버선(2-2)는 전면 9.0cm, 후면 7.0cm 누벼져 있다.

a-1	a-2
a-3	a-4
b-1	b-2

- (a-1) 가죽버선(2-1)  
버선목 직물 겉감  
(a-2) 가죽버선(2-1)  
버선목 직물 안감  
(a-3) 가죽버선(2-1)  
버선목 덧댄 직물  
(a-4) 가죽버선(2-1)  
버선목 덧댄 직물  
연결 바느질과  
누빔 바느질  
(b-1) 가죽버선(2-2)  
버선목 직물 겉감  
(b-2) 가죽버선(2-2)  
버선목 직물 안감



도4. 가죽버선의 직물 현미경 사진



가죽버선을 제작할 때 사용된 바느질 방법은 온박음질, 홈질, 공그르기, 감침질이다. 솔기의 연결은 홈질, 가죽과 가죽을 연결할 때는 온박음질, 버선목 시접은 안감 쪽으로 넘겨 공그르거나 홈질을 해주었다. 덧댄 직물은 뒤축에서 홈질과 감침질로 마무리해 주었다. 가죽버선(2-1)과 가죽버선(2-2)은 전체적으로 훼손이 심한 상태로 발바닥이 닿는 면은 거의 손상되었고, 가죽버선(2-2)는 직물의 열화가 심하여 발목 부분의 겉감과 안감이 일부 소실된 것이 확인됐다.

가죽버선의 처리 전 상태는 도5와 같으며, 직물 조직, 바느질 방법, 손상 상태, 특이점 등을 기록한 손상지도를 작성했다<sup>(도6)</sup>.

가죽의 성격 확인을 위해 FT-IR(IZ-10, Thermo Fisher Scientific, U.S.A) 분석을 시행하였으나, 손상이 심하여 동물성 시료라는 결과 이외에 종류를 판별할 수 있는 유의한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a	b
c	d

- (a) 손상된 가죽  
(b) 표면 오염물  
(c) 손상되고 유실된  
바닥면  
(d) 불규칙한 주름

도5. 가죽버선의 처리 전 상태

a-1	a-2
b-1	b-2

(a-1) 가죽버선(2-1)

오른쪽면

(a-2) 가죽버선(2-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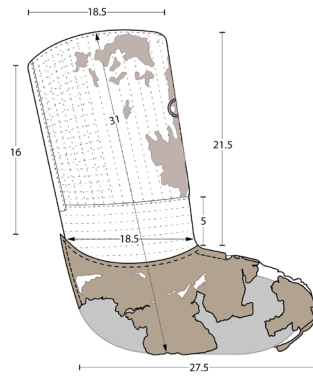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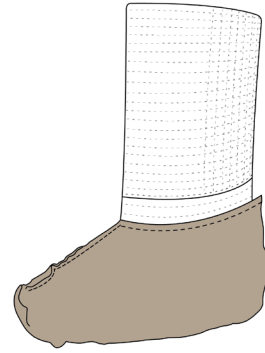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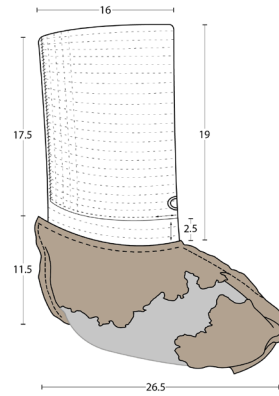
왼쪽면

(b-1) 가죽버선(2-2)

오른쪽면

(b-2) 가죽버선(2-2)

왼쪽면



도6. 가죽버선의 손상지도(연구자 작성)

### 3.2. 세척

세척은 건식표면세척으로 흙과 먼지를 제거한 후 가죽버선의 재질적 특성을 고려하여 직물로 구성된 버선목 부분만 습식세척을 통해 기타 오염물과 주름을 제거하고자 했다. 가죽버선의 표면은 종이가 직물과 엉켜있었으며, 흙과 먼지 같은 오염물로 뒤덮여 있었는데 안쪽 또한 비슷했다. 이에 먼저 건식세척기(Vacuum Cleaner, MUNTZ 555-MU-E HEPA GS, Netherlands)를 이용한 진공흡인방법으로 표면과 내부 세척을 진행하였으며<sup>[도7(a)]</sup>, 직물과 엉켜있는 종이는

약간의 수분을 주어 핀셋을 사용해 떨어지는 부분만 우선적으로 제거했다.

직물로 구성된 버선목 부분의 습식세척을 진행하기 전에, 상태가 좋지 않은 가죽 부분은 거즈로 감싸 추가 손상을 방지하는 작업을 했다<sup>[도7(b)]</sup>. 세척액은 탈이온수(온도 30-35℃)에 비이온계 계면활성제인 사포닌(Saponin, Kanto Chemical Co., Inc, Tokyo, Japan)(0.6g/L)을 용해하여 세척을 진행했다. 행굼은 3회 이상하고, 계면활성제로 인한 거품이 제거되는 상태에 따라 헹수는 늘려 진행하였다<sup>[도7(c)]</sup>. 세척 후 흡수지로 표면의 물기를 빠르게 제거해주었고<sup>[도7(d)]</sup> 버선목 안쪽에 등글게 만 흡수지를 넣고 형태를 잡아 구김과 주름을 제거해주었다<sup>[도7(e)]</sup>. 그 다음 가죽을 감싼 거즈를 제거하고<sup>[도7(f)]</sup> 순응과정을 통해 유연해진 가죽 부분의 주름은 조심스럽게 펴고<sup>[도7(g)]</sup> 그 위에 대나무핀셋을 올려 지지하고 형태를 유지하면서 건조되게 하였다. 대나무핀셋은 무게감이 적어 가죽에 피해 없이 주름 펴는 지지물로 사용가능하였고 대나무핀셋 끝에는 납구슬이 담긴 문진을 올려 일정시간 같은 모양을 유지하는데 도움을 주었다. 급격한 환경변화를 막기 위해 조습제를 넣은 밀폐장에 넣어 온도는 23℃, 습도는 70%를 유지해주면서 원형을 회복할 수 있도록 했고, 점차적으로 습도를 낮춰 직물류 수장 공간의 온도  $20\pm4^{\circ}\text{C}$ , 습도 50-55%에서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sup>[도7(h)]</sup>.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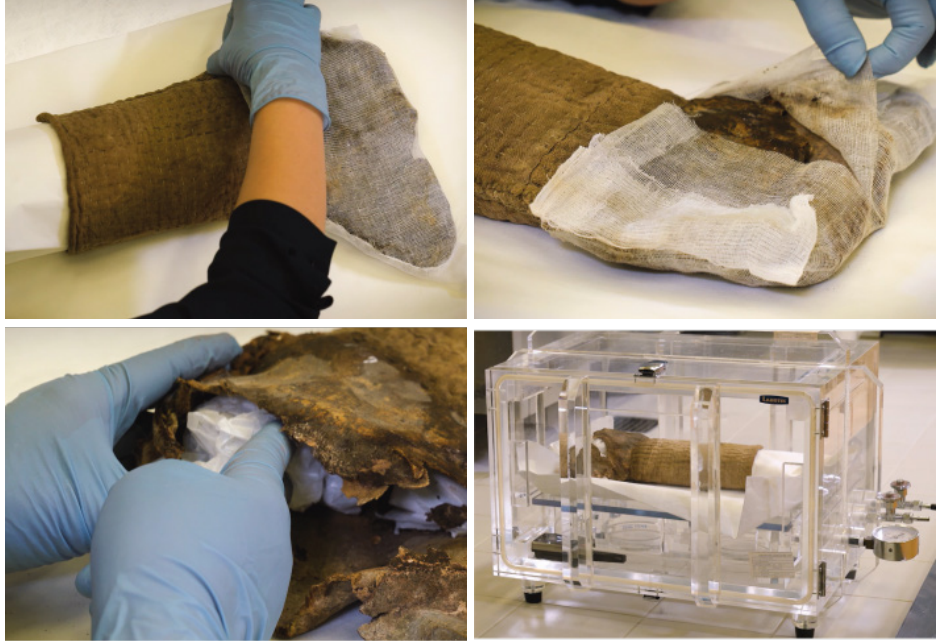


a	b
c	d

- (a) 진공흡인세척  
(b) 가죽 표면 보호를 위한  
유실방지 처리  
(c) 계면활성제를 사용한  
습식세척  
(d) 수분 제거

e	f
g	h

- (e) 버선목 모양잡기  
(f) 유실방지용 거즈 제거  
(g) 버선발 모양 잡기  
(h) 조습상태에서 순응하면서 건조



도7. 가죽버선의 처리 전 상태

세척 전 후 색차를 측정하여 세척 효과 확인을 위한 정보로 활용하였다<sup>(표4)</sup>.

표4. 세척 전과 후의 색차 비교

명칭	측정 부위	세척 전				세척 후				
		유물사진	L*	a*	b*	유물사진	L*	a*	b*	
가죽 버선	1		51.42	1.94	5.84		58.72	2.36	8.70	
	2		52.77	2.28	7.30		59.35	3.16	10.37	
	3		59.45	2.40	9.32		65.95	2.22	10.18	

### 3.3. 손상부 보수

유물의 열화, 손상, 결손 부분에 대한 보수 및 보강은 유물의 수명연장에 도움을 주며 2차 파손을 최소화하고 향후 전시 및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도록 하는 단계이다. 보수를 진행하기에 앞서 보수의 가능 여부 판단하였고, 유물의 손상 유형을 ①결손 및 탈락<sup>[도8(a-1)]</sup>, ②솔기 파손<sup>[도8(b-1),(c-1)]</sup>의 두 가지로 분



류했다. 유물의 특정 부위가 결손 및 분리된 경우, 보수해야 할 부분의 반대쪽이 남아 있거나 전체적인 형태가 유추가 가능한 것은 다른 부분의 치수와 형태를 참고하여 유물과 균형이 맞는 범위 내에서 제작하여 접합했다<sup>[도8(a-2),(b-2),(c-2)]</sup>.



a-1	a-2
b-1	b-2

- (a-1) 버선목 결손 및 탈락 처리 전  
(a-2) 버선목 결손 및 탈락 처리 후  
(b-1) 가죽 술기 파손 처리 전  
(b-2) 가죽 술기 파손 처리 후

c-1	c-2
-----	-----

- (c-1) 버선목 뒷술기 파손 처리 전  
(c-2) 버선목 뒷술기 파손 처리 후

도8. 가죽버선의 손상 부분과 처리 전·후 모습



가죽버선(2-2)은 직물의 열화가 심하게 진행되어 찢어지거나 소실되어있었기 때문에 2차 손상이 발생되지 않도록 결손부위를 보강해 유물의 안정성을 높이고자 했다.

보수에 사용한 보강 직물은 유물과 동일한 재질이면서 두께는 유물보다 얇은 면직물을 사용했고, 오배자(五倍子)와 먹으로 염색을 하여 색 맞춤 해주었다. 보수용 실은 유물보다 가는 2합 면사와 단사를 사용하여 유물과 보수직물 연결 시 유물에 부담을 주지 않도록 했다. 또한, 보수 및 보강을 위한 바느질은 걸감이 결손되었을 경우 보강 직물을 걸감과 안감 사이에 넣고 올을 맞춘 다음 시침핀으로 고정시킨 뒤 안감이 바느질되지 않도록 하여 징금수 기법(Couching Stitch)을 통해 가역적인 방법으로 보수를 실시했다<sup>[도8(a-2)]</sup>. 가죽 솔기는 원형과 동일하게 면사를 사용해 온박음질을 해주어야 하나 가죽 표면에 열화된 기존의 면사가 남아 있어 이를 제거하지 않고 남겨두는 방안으로 투명사로 바느질 흔적을 따라 감침질로 연결해주었다<sup>[도8(b-2)]</sup>. 버선목 뒷솔기가 터진 부분은 유물과 동일하게 감침질로 보수를 진행했다<sup>[도8(c-2)]</sup>. 경화된 가죽은 순응을 통해 연화되었으나 매우 부서지기 쉬운 상태가 되었다. 결합이 끊어진 가죽 부분은 가죽의 색상과 유사하게 오리나무로 염색된 한지에 아교를 발라 안쪽에서 지지해주는 방법으로 강도를 보강하였다.

### 3.4. 형태 복원

조사를 통해 확인된 해당 가죽버선은 표3에서 살펴 본 가죽버선의 유형과 특징이 대부분 일치했기 때문에 형태를 참고하여 복원하였다.

가죽버선 2-1<sup>[도9(a)]</sup>과 2-2는 모두 버선 바닥면이 소실된 상태로 가죽을 유연하게 만들어 주름진 가죽을 펴주었으며, 버선목과 버선볼 부분에 중성지를 넣어 양감을 만들어 주었다<sup>[도9(b)]</sup>. 형태를 유지할 수 없는 버선코 부분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완충제[PE-form]로 버선볼 형태를 만든 후 색맞춤하여 염색한 노방을 씌워 보강제를 제작했고, 가죽버선 안쪽에 끼워 버선볼 부분의 형태를 맞춰주었다<sup>[도9(c)]</sup>. 보강제는 가죽버선 전체를 지지하고 외형을 만들어줄 수는 있지만 그대로 유지할 수 없었고 유연하게 안정화된 가죽도 분상화가 진행되고 있는 부분의 보호가 없으면 외부 마찰에 의해 추가 탈락이 발생할 우려가 있으므로 가죽 전체를 감싸는 표면 보호를 해주었다. 보존용 직물(Crepeline, 100% silk)로 버선볼 형태를 만들어 가죽 부분을 안정화시켰다<sup>[도9(d)]</sup>.



a	b
c	d

- (a) 형태 복원 전
- (b) 형태 복원 및 가죽 주름 제거
- (c) 외형 유지를 위한 보강제 제작
- (d) 보존용 섬유로 가죽 표면 보호

도9. 가죽버선의 형태 복원 과정

### 3.5. 보관

보존처리가 완료된 가죽버선은 형태가 변형되지 않도록 목화솜을 넣은 완충쿠션을 만들어 버선목 안쪽에 끼워 형태가 고정될 수 있도록 했으며, 보존 용지를 사용하여 상호마찰로 생길 수 있는 손상을 줄이고자 했다. 또한, 가죽 부분의 유연도 유지를 위해 조습제를 넣어 보관 관리에 도움이 되도록 하였다<sup>(도10)</sup>.

a-1	a-2
b-1	b-2

- (a-1) 가죽버선(2-1)  
보존처리 전  
(a-2) 가죽버선(2-1)  
보존처리 후  
(b-1) 가죽버선(2-2)  
보존처리 전  
(b-2) 가죽버선(2-2)  
보존처리 후



도10. 가죽버선의 보존처리 전과 후 비교

### 4. 결론

본 연구는 국립중앙박물관 소장품인 설상용(雪上用) 가죽버선(남산1567)의 보존처리를 통해 추후 전시와 연구에 활용될 수 있도록 안정성을 확보하는 것을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했다.

이론적 연구를 통해 살펴본 가죽버선은 제주도와 연관되어 등장하고, ‘피말(皮襪)’, ‘늑피말(鹿皮襪)’, ‘장피말(獐皮襪)’, ‘리피말(狸皮襪)’ 등과 같은 단어로 문헌에서 확인되는데 표기된 구성을 보면 앞부분에는 쓰인 재료, 뒷부분은 말(襪)이 결합된 형태이다. 현존하는 가죽버선 유물은 대부분 제주도의 중산간지역에서 목축업자나 테우리[목동], 사냥꾼, 화전민들이 착용했던 것으로 ‘가죽보선’이라 부른 것을 확인했다.

보존처리에 앞서 보존처리의 방향 및 계획을 수립하고자 기초조사를 실시했고,

현존하는 유물과 비교했을 때 동일한 구성과 재질, 형태를 갖고 있는 것으로 판단했다.

보존처리는 유물 처리 전 상태 조사 → 세척 → 형태보정 → 보수 → 형태복원 → 보관의 순서로 진행했으며, 이상의 과정을 통해 가죽 버전의 직물과 가죽에 손상을 주는 주요 원인을 제거하고, 원형을 회복하여 유물이 안정화된 상태로 보관될 수 있도록 했다.

경화된 가죽은 고습순응 방법으로 유연성을 부여하고, 분상화 부분의 강화와 함께 간접적인 방법으로 원형유지와 전시연구의 활용에 도움을 주는 보존처리 방법을 제시하였다. 가죽과 직물의 결합 등 복합재질의 복식품 보존처리에 활용되길 기대한다.

## 참고문헌

1.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삼국사기(三國史記)』 卷 第33, 雜誌 第2, 색복(色服)-옥사(屋舍), <http://db.history.go.kr/>, (2022).
2. 국립중앙도서관, 『훈몽자회(訓蒙字會)』, <https://www.nl.go.kr/NL/contents/search.do?srchTarget=total&pageNum=1&pageSize=10&kwd=%ED%9B%88%EB%AA%BD%EC%9E%90%ED%9A%8C#!>, (2022).
3. 김의숙, 濟州島 牧者服 研究, *탐라문화* 11, p251-253, (1991).
4. 고부자, 濟州道 衣生活의 民俗學的 研究, 서울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67, (1994).
5. 안보연, 우리나라 모피와 피혁 복식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30, (2005).
6. 고순희, 제주 전통 모피 피혁류 복식 연구, 제주대학교 박사학위논문, p55-139, (2011).
7. 박양희, 조선시대 복식에 사용된 가죽과 모피에 관한 연구, 단국대학교 석사학위논문, p113-115, (2020).
8. 박승원, 권희홍, 유혜선, 조경미, 국립춘천박물관 소장 서대(犀帶)의 과학적 보존, *박물관 보존과학* 11, (2010).
9. 황진영, 국립한글박물관 소장 덕온공주 집안 서대(犀帶)의 보존처리 및 특징, *박물관 보존과학* 25, (2021).
10. 박진호, 박지혜, 황진영, 국립중앙박물관 소장 갑주(甲冑)의 보존처리와 구조적 특징 : -조선시대 중·후기 갑주를 중심으로, *박물관 보존과학* 26, (2021).

11. 이승리, 국립고궁박물관 소장 동개의 과학적 분석과 보존, *古宮文化* 7, (2014).
12. 장서각기록유산 DB, 『조극선일기』, 「인재일록(忍齋日錄)」 제1(第一) 광해군 6년(1613, 계축) 6월 17일, <https://visualjoseon.aks.ac.kr/>, (2022).
13. 이병도[역], *역주 하멜漂流記*, p36, 한국학술정보(주), 경기, (2012).
14.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승정원일기(承政院日記)』, 승정원일기 1139책(탈초본 63책) 영조 32년 12월 28일, <http://sjw.history.go.kr/id/SJW-F32120280-02800>, (2022).
15. 서울대학교 규장각한국학연구원, 『일성록(日省錄)』, 정조 10년(1786) 1월 22일 정묘, <http://e-kyujanggak.snu.ac.kr/home/index.do?idx=06&siteCd=KYU&topMenuId=206&targetId=379>, (2022).
16. 뭇文福[편], *영주풍아(瀛州風雅)*, p90, 봄데강, 제주, (1988).
17. 박동욱, 한시에 나타난 유배객의 생활 모습-『정헌영해처감록』을 중심으로 -, *어문연구(語文研究)* 38(3), p387, (2010).
18. 고부자, *濟州 입성[服飾, 衣生活]*, *제주복식*, p133, ㈜디자인나눔, 서울, (2019).
19. 진성기, *濟州民俗의 멋* 1, p11, 열화당, 서울, (1975).
20. 제주대학교박물관, *제주의 복식*, p172, 도서출판 각, 제주, (2010).